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金 武 林**

1. 導入

漢字의 音과 訓을 이용하여 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표기한 口訣은 문헌의 읽는 방법에 따라 逆讀 구결과 順讀 구결로 나뉜다. 本稿는 借音에 의하여 표기화된 口訣 漢字를 대상으로 借音 과정 및 漢字音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특히 本稿에서는 借音 口訣字의 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高麗 時代에 사용된 逆讀 및 順讀 口訣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1)]

口訣 漢字音은 국어의 傳承 漢字音과의 관련을 통해서 볼 때 맥락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구결 한자음의 논의를 통하여 전승 한자음의 고정이라는 측면도 해명할 수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本稿에서 사용하는 口訣 관련 용어로서는 逆讀과 順讀, 그리고 借訓과 借音 등이 있다. 逆讀은 釋讀이나 訓讀으로, 順讀은 音讀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逆讀과 順讀으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借訓, 借音은 흔히 訓借, 音借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어법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다.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조선 한자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특히 구결자에 독특한 借音에 초점을 두어 간결하게 논의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구결의 차음가가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으면서 중고음 기반으로 이해되는 구결자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논의를 생략하였다.

2. 借音 口訣字 目錄

<凡例>

① 借音 口訣字 目錄은 白斗鉉(1997)과 정재영(1997)을 주로 참조하였다.

② 漢語의 上古音 및 中古音은 「漢字古今音表」(1993)에 제시된 再構音이다.

③ 朝鮮 漢字音과 그에 따른 文獻 略號는 「古今漢韓字典」(1995)에 의거하였다.

④ 備考에는 해당 字의 중고음 기반의 攝, 等, 韻을 차례로 보였다.

⑤ 本字 및 表音에 소괄호를 친 것은 불확실한 경우이다.

⑥ 漢語 上古音에는 異見이 있으므로, 「漢字古今音表」(1993) 외에 「漢字古今音彙」(1974)에 제시된 諸家의 再構音도 아울러 이용할 것이다.

⑦ 'ㅌ'의 본자는 '艮'으로 하지 않고 '恨'으로 하였다.

⑧ 'ㅈ'의 본자로서는 '屎'와 '兮'에 대한 것을 모두 보였다.

⑨ '火'를 본자로 하는 '火(ㅂ)'는 借音字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借訓으로 생각되어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⑩ '應'의 구결자 'ᄼ'는 'ㅣ'와 합체하여서만 쓰이지만, 차음가를 'ㅇ'로 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였다.

本字	文獻	口訣字	表音	朝鮮音	上古音	中古音	備考
只	逆/順	ㅅ	ㄱ/(기)	지(飜小) 기(東新三) 짛/징(東)	tje	tɕje	止攝 開3等 紙韻
(艮)	逆	艮	ㄱ/ᄀᆞ	곤(三聲) 곤(東)	kən	kən	臻 開1 恨
可	順	可	가	가(六祖) 캉(東)	khai	kha	果 開1 哿
去	逆/順	去/ᄎᆞ	거	거(飜小) 컹(東)	khja	khjo	遇 合3 語
古	逆/順	ㅁ/古	고	고(飜小) 공(東)	ka	ku	遇 合1 姥

果	逆/順	果/ㅎ/ㅂ/ㅅ	과	과(六祖) 관/광/뭥(東)	kuai	kuɑ	果 合1 果
隱	逆/順	ㄱ/ᄇᆞ	ㄴ	은(三施) 온(東)	iən	jən	臻 開3 隱
乃	逆/順	乃	나	내(飜小) 냉(東)	nə	nɐi	蟹 開1 海
那	順	那	나	나(六祖) 낭(東)	nai nuə	nɑ	果 開1 歌,哿
奴	逆/順	ㅅ/ㅈ/女	노	노(宣小) 로(宣小) 농(東)	na	nu	遇 合1 模

尼	逆/順	ㄷ/尼	니	니(宣中) 닐(三聲) 닑/닝/잉(東)	njei	ni	止 開3 脂
多	逆/順	ㅣ/ᄉᆞ	다	다(六祖) 징/당(東)	tai	tɑ	果 開1 歌
大	順	大/ナ	대	대(救簡) 태(宣中) 탱/땡/ 땅/뱡(東)	dat dai	dɑi dɑ	蟹,果 開1,開1 泰,箇
底	順	氐/底	뎌	뎌(三施) 뎨(宣小) 지(飜小) 징/뎽(東)	tiei	tiei	蟹 開4 齊
丁	逆/順	丁	뎌/뎡	뎡(宣孟) 징(註千) 딩/뎡(東)	teŋ tieŋ	ʈæŋ tieŋ	梗 開2,開4 耕,靑

第	逆	ᄶ	뎨	뎨(飜小) 뗑(東)	diei	diei	蟹 開4 霽
刀	逆/順	ㄉ	도	도(六祖) 듕/듛(東)	tau	tɑu	效 開1 豪
斗	逆/順	ㅗ	두	두(訓蒙) 듕/즁(東)	tɔ	təu	流 開1 厚
知	逆/順	矢/知	디	디(六祖) 지(註千) 딩(東)	ʧe	ʧe	止 開3 支
地	順	ㅌ	디	디(救簡) 띵(東)	djai	di	止 開3 至

止	逆	ㄷ	디	지(飜小) 징(東)	ʧa	ʧəjə	止 開3 止
冬	逆	ᄌ	두/ᄃ/둘	동(呂約) 둥(東)	tuŋ	tuoŋ	通 合1 冬
矣	逆/順	ㅅ/矣	듸	의(飜小) 읭(東)	ɣjə	ɣjə	止 開3 止
乙	逆/順	ㄴ/乙	ᄅ	을(飜老) 읋/얋(東)	jet	jĕt	臻 開3 質
(尸)	逆	尸	ᄉ	시(宣小) 싱(東)	ɕjei	ɕi	止 開3 脂

羅	逆/順	ㆍ/ㅅ/ㅛ/ 罒	라	라(六祖) 랑(東)	lai	lɑ	果 開1 歌
戾	順	戶/尸	려	려(宣小) 려/렬(三聲) 렫/렝(東)	liei	liei	蟹 開4 霽
呂	順	ㅁ	려	려(飜小) 녀(宣小) 령(東)	ljа	ljo	遇 合3 語
奴	順	又	로	노(宣小) 로(宣小) 농(東)	na	nu	遇 合1 模
彔 (錄) (綠)	順	彔	록	록(救簡) 록(東)	ljwɔk	ljwok	通 合3 燭

了	順	了	료	료(六祖) 룡(東)	liau	lieu	效 開4 篠
利	順	刂	리	리(六祖) 니(類合) 링(東)	ljei	li	止 開3 至
利	逆/順	禾/禾/禾	리	리(六祖) 니(類合) 링(東)	ljei	li	止 開3 至
音	逆	亠/音	ㅁ	음(供養) 음(東)	jəm	jĕm	深 開3 侵
𠂇	逆/順	𠂇	마	마(新字)			

麼	順	广/麻	마			mua	果 合1 果
彌	逆/順	尒/久/尒	며	미(六祖) 밍(東)	mjei	mje	止 開3 支
面	順	𠂆	면	면(六祖) 면(東)	mjan	mjɛn	山 開3 線
毛	逆	毛	모	모(六祖) 룡(東)	mau	mɑu	效 開1 豪
勿	逆/順	勿	(믈)	믈(飜小) 뭃/뭃(東)	mjwət	mjuət	臻 合3 物

未	順	未	미	미(供養) 밍(東)	mjwəi	mjwəi	止 合3 未
邑	逆/順	口/巴/邑	ㅂ	읍(六祖) 흡/하ㅂ(東)	jəp	jĕp	深 開3 緝
叱	逆/順	七/叱	ㅅ	즐(宣小) 칠(東)	ʧjet	ʦjĕt	臻 開3 質
沙	逆/順	氵	사/ㅿ	사(六祖) 상(東)	ʃeai	ʃa	假 開2 麻
三	逆	三	삼	삼(救簡) 삼/참(東)	səm	sɑm	咸 開1 談,闞

舍	順	舍/亼	샤	샤(六祖) 샤/셕(註千) 샹/상(東)	ɕia	ɕja	假 開3 馬
西	順	一/西	셔	셔(六祖) 션/셍(東)	siei	siei	蟹 開4 齊
所	順	戶/所	소	소(六祖) 송(東)	ʃjo	ʃja	遇 合3 語
小	順	小	쇼	쇼(救簡) 소(釋要) 즁(東)	sjɛu	sjau	效 開3 小
是	順	丶	시	시(六祖) 씽(東)	ʑje	ʑje	止 開3 紙

示	逆/順	亍	시	시(六祖) 시/기(三聲) 씽(東)	ʤjei	ʤi	止 開3 至
賜	逆	ㅎ	시	스(供養) 승(東)	sje	sje	止 開3 寘
時	順	时	시	시(六祖) 씽(東)	ʑjə	ʑjə	止 開3 之
士	順	士	스	스(六祖) 상(東)	ʧjə	ʧjə	止 開3 止
四	順	四	스	스(六祖) 승(東)	sjei	si	止 開3 至

生	順	生	싱	싱(六祖) 생(釋要) 싱/셩(東)	ʃeŋ	ʃɐŋ	梗 開2 庚
兒	順	兒	싀	싀(齲小) 으(宣小) 예(註千) 싱/영(東)	ŋje, ŋie	ŋje, ŋiei	止,蟹 開3,開4 支,齊
阿	順	卩	아	아(六祖) 아/옥(註千) 항(東)	ai	ɑ	果 開1 歌
厓 (崖)	順	厂	애	애(宣小) 의(三聲) 잉(兒學) 왕/영(東)	ŋe	ŋai	蟹 開2 佳
也	逆/順	ㄴ/ㄱ/也	야	야(齲小) 양(東)	ʎiai	yᵛa	假 開3 馬

於	順	方/ヰ/今	어	어(供養) 오(宣大) 홍/형(東)	ja	jo	遇 合3 魚
言	順	言/言	언	언(六祖) 은/언(東)	ŋjan	ŋjɐn	山 開3 元
殷	順	月	언/은	은(宣孟) 은/안(註千) 혼/한/현(東)	iən, eən	jən, æn	臻,山 開3,開2 殷,山
亦	逆/順	亠/丶/八	여	역(供養) 역/익(註千) 역(東)	ʎiak	yjɛk	梗 開3 昔
與	逆	与	여	여(宣中) 영(東)	ʎja	yjo	遇 合3 魚

曳	順	曳	예	예(飜小) 읊/영(東)	ʎjat	yjɛi	蟹 開3 祭
午	順	午/𠂉	오	오(六祖) 옹(東)	ŋa	ŋu	遇 合1 姥
五	逆/順	五	오	오(六祖) 옹(東)	ŋa	ŋu	遇 合1 姥
玉	順	玉	옥	옥(飜朴) 옥(東)	ŋjwɔk	ŋjwok	通 合3 燭
臥	順	卜	와	와(六祖) 왕(東)	ŋuai	ŋuɑ	果 合1 過

要	順	覀/要	요	요(飜小) 륨(東)	jau	jɛu	效 開3 宵
于	逆	于	우	우(宣小) 웅(東)	ɣjwa	ɣju	遇 合3 虞
又	逆	又	우	우(宣論) 역(新字) 흄(東)	ɣjwa	ɣju	流 開3 宥
衣	逆/順	衤/衣	의	의(六祖) 픵(東)	jəi	jəi	止 開3 微
亦	逆/順	丬	이	역(供養) 역/익(註千) 역(東)	ʎiak	yjɛk	梗 開3 昔

已	順	已	이	이(六祖) 잉(東)	ʎjə	yjə	止 開3 止
伊	順	伊	이	이(飜小) 힝(東)	jei	i	止 開3 脂
印	順	印	인	인(六祖) 힌(東)	jen	jĕn	臻 開3 震
應	順	广	ᄋᆞ	응(六祖) 흥(東)	jəŋ	jəŋ	曾 開3 蒸
上	順	上	자	샹(飜小) 상(釋要) 샹/쌍(東)	ʑjaŋ	ʑjaŋ	宕 開3 養

齊	逆/順	ᄌᆞ/ᄌᆞᆨ	져	졔/ᄌᆞ(宣小) 지/재(宣論) 졔/자(釋要)	ʤiei	ʤiei	蟹 開4 齊
子	逆/順	子	(ᄌᆞ)	ᄌᆞ(宣中) 자(釋要) 중(東)	ʦjə	ʦjə	止 開3 止
土	順	土	토	토(六祖) 동/통/똥(東)	tha	thu	遇 合1 姥
下	逆/順	下	하	하(六祖) 항/강/행(東)	ɣea	ɣa	假 開2 馬
乎	逆/順	ノ/ㄱ/乎	호	호(飜小) 홍(東)	ɣa	ɣu	遇 合1 模

戶	順	戶/戶	호	호(宣論) 홍(東)	ɣa	ɣu	遇 合1 姥
屎	逆/順	ᄉᆞ	히	시(訓蒙) 히/시(全玉) 싱/힝(東)	hjei, ɕjei	hi, ɕi	止 開3 脂,旨
兮	逆/順	ᄉᆞ	히	혜(宣大) 혱(東)	ɣie	ɣiei	蟹 開4 齊
恨	逆	艮	흔	흔(飜小) 흔(東)	ɣən	ɣən	臻 開1 恨

3. 韓國 漢字音의 特性

韓國 漢字音의 특성은 한자음 전래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전래된 당시의 국어 음운 체계에 의한 한자음의 변용, 그리고 국어사 속에서 겪은 역사적 변천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요약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假定을 내포한 記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연구 성과에 기대어 「切韻」으로 대표되는 中古 漢語音과 「訓蒙字會」식 한자음의 주요한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1) 「訓蒙字會」식 한자음의 특성
  가. 全濁音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脣重/脣輕, 舌頭/舌上, 齒頭/正齒의 변별이 없다.
  다. 全淸과 次淸의 변별은 조음 위치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라. 舌內 入聲은 '-ㄹ[l]'로 반영되어 있다.
  마. 1等韻과 2等韻의 변별이 없다.
  바. 舌音과 脣音 아래에서 合口音의 연결이 제한된다.
  사. 聲調는 上聲과 去聲의 변별이 없다.

위에 열거한 여러 특징은 대부분이 漢語와 國語의 음운 체계상의 차이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訓蒙字會」식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이해는 (1)을 비롯한 한자음의 여러 특징들을 漢語音韻史의 제 단계와 비교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언어의 史的 再構는 항상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訓蒙字會」를 시작으로 한 한국 한자음의 기층(/모태)에 대한 논의도 대체로 「切韻」代를 전후하여 異見이 있는 형편이다. 한국 한자음의 모태에 대한 여러 견해에서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2) 「訓蒙字會」식 한자음에 대한 논의는 朴炳采(1971), 李敦柱(1979, 1995)를 주로 참고하였다.

(2) 조선 한자음의 모태에 대한 여러 견해
가. 隋唐代의 北方 中古音說: B. Karlgren(1954)
나. 宋代 開封音說: 有坂秀世(1936/1957)
다. 唐代 長安音說: 河野六郎(1964~1965, 1979)
라. 切韻音系의 北方 中原音說: 朴炳采(1971)
마. 南北朝音說: 辛容泰(1988)

이와 같은 연구에서 한국 한자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河野六郎(1964~1965)이라 할 수 있다. 河野六郎(1979: 506~509)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주요한 기층으로서 唐代 長安音을 지목하면서도, 한국 한자음은 기층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한자음의 전래는 그 역사가 삼국 시대 이전으로 소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인하기 어려운 근대적 특징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한자음의 모태는 新舊의 다양한 기층이 혼합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3]

특히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표기된 地名, 人名 등과 같은 借音字의 분석에 의해서도 삼국 시대의 한자음은 조선 시대의 「訓蒙字會」식 한자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借音에 의하여 同音 관계에 있는 '督, 道, 涿'
가. 押督 ↔ 押梁(삼국사기 1, 34, 신라 지명)[4]
나. 沙梁部: 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삼국유사 1, 신라 지명)

---

3) 한국 한자음의 新層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止攝 齒音의 4等韻(사실상 3等韻)의 韻母가 '·'로 반영된 점이다. 예를 들어 '四(ᄉᆞ), 思(ᄉᆞ), 自(ᄌᆞ), 次(ᄎᆞ)' 등과 같은 한자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영 양상을 근대음의 특색으로 지적한 有坂秀世(1936)의 논의에 대하여 朴炳采(1971)에서는 오히려 上古音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李敦柱(1981)에서 再論한 바와 같이 이것은 「切韻指掌圖」의 等韻 배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近代音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梁'은 訓借字이다.

借音 표기에 의한 이와 같은 同音 관계는 삼국 시대의 한자음이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규범화된 한자음과 그 음가가 달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5] 「鄕藥救急方」(13 세기)의 鄕名 표기에서도 '道羅次-도랒/도라지, 包衣/包來-보릐' 등의 讀音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次, 包'의 한자음도 역시 조선 시대의 '次(ᄎᆞ), 包(포)'와는 다른 한자음이었다고 하겠다.

한자음에 대한 이러한 상황은 한국 한자음의 규범화가 역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한자음 자체의 변천은 물론 새로운 한자음에 의해 교체되는 상황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口訣에 사용된 借音 口訣字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口訣의 借音字에 대한 讀音이 어느 정도 올바른 것이라 한다면, 借音字의 음가는 「訓蒙字會」식 한자음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口訣의 借音字로 사용된 한자 가운데서 16 세기의 「訓蒙字會」식 한자음과 다른 경우를 주목하면서 口訣 漢字音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4. 口訣 借音字에 대한 검토

4.1. 문제의 제기

口訣의 借音字 목록에서 조선의 규범 한자음과 달리 讀音되는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5) 고려 시대에 편찬된 「三國史記」(1145)나 「三國遺事」(1285)에 이와 같은 註釋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고려 시대의 한자음이 삼국 시대의 한자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최소한 고려 시대에는 삼국의 한자음이 止揚되고 綜合되어 통일된 규범적인 한국 한자음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조선 한자음과 음가가 다른 구결의 차음자

只(ㄱ/기), 乃(나), 冬(ᄃᆞ/드/ᄃᆞᆯ), 止(디), 矣(듸), 尸(ᄉᆞ/ᄭᅴ), 彌(며), 叱(ㅅ), 賜(시), 亦(여/이), 上(자), 齊(져), 尿/兮(히)

구결 표기에 사용된 이러한 구결자가 조선대의 한자음과 독음이 다르다고 하여 해당 시대의 한자음이 조선대의 그것과 무조건 다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借音 표기에 쓰인 한자는 借音 과정에서 기존의 한자음을 바탕으로 變音, 略音 등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한자로는 우선 '冬, 矣'를 들 수 있다. 반면에 '彌'에 대한 '며'의 음가는 본래의 한자음과의 관련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성격이므로, 당시의 한자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일정한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의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口訣에서 全借音으로 쓰인 한자를 漢語 音韻史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선 한자음이나 구결 한자음의 모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王力(1985)에 의한 漢語 音韻史에서 韻母의 변천을 해당 구결 한자음과 관련시켜 보인 것이다.

(5) 王力(1985)에 의한 口訣 借音字 漢字音 韻母 變化表[6]

가. 逆讀 文獻 口訣[7]

時代 / 韻母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淸	現代	該當 口訣漢字
開三(支)	je	je	je	je	i	i	i	ɿ	ɿ	ɿ	只,知
開一(根)	ən	ən	ən	ɐn	ɐn	ɐn	ɐn	ən	ən	ən	艮,恨
開三(魚)	ja	jɔ	jɔ	jɔ	jo	ju	ju	ju	y	y	去,與
開一(姑)	a	ɔ	ɔ	o	u	u	u	u	u	u	古,奴,乎
合一(過)	uai	uɑ	uɑ	uɑ	uɑ	uɑ	uɔ	uɔ	uɔ	uo	果
開三(斤)	jən	jən	jən	jən	in	jən	jən	jən	in	in	隱
開一(該)	ə	ə	ə	ɐi	ɑi	ɑi	ai	ai	ai	ai	乃
開三(伊)	jei	jei	jei	jei	i	i	i	i	i	i	尼
開一(多)	ai	ɑ	ɑ	ɑ	ɑ	ɑ	ɔ	ɔ	ɔ	uo	多,羅
開四(齊)	iei	iei	iei	iei	iæi	iæi	i	i	i	i	第,齊,兮
開二(耕)	eŋ	eŋ	eŋ	eŋ	ɐŋ	ɐŋ	ɐŋ	əŋ	əŋ	əŋ	丁(뎡)
開四(丁)	ieŋ	ieŋ	ieŋ	ieŋ	ieŋ	ieŋ	iŋ	iŋ	iŋ	iŋ	丁(뎡)
開一(豪)	o	o	o	ou	ɑu	ɑu	au	au	au	au	刀,毛
開一(侯)	ɔ	u	u	u	ou	əu	əu	əu	əu	əu	斗
開三(之)	jə	jə	jə	jə	i	i	i	ɿ	ɿ	ɿ	止
合一(冬)	uəm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冬
開三(基)	jə	jə	jə	jə	i	i	i	i	i	i	矣
開三(古)	jet	jet	jet	jet	it	jət	it	i	i	i	乙
開三(尸)	jei	jei	jei	jei	i	i	i	ɿ	ɿ	ɿ	尸,示,屎(시)
開三(利)	je:t	je:t	je:t	jei	i	i	i	i	i	i	利
開三(琴)	jəm	jəm	jəm	jəm	jəm	im	im	im	in	in	音
開三(伊)	jei	jei	jei	jei	i	i	i	i	i	i	彌,屎(히)
開三(及)	jəp	jəp	jəp	jəp	jəp	jəp	ip	i	i	i	邑
合一(火)	uoi	uoi	uɑ	uɑ	uɑ	uɑ	uɔ	uɔ	uɔ	uo	火
開三(室)	jet	jet	jet	jet	it	jət	it	i	ɿ	ɿ	叱
開二(麻)	eai	eɑ	eɑ	eɑ	a	a	a	a	a	a	沙
開三(斯)	je	je	je	je	i	i	ɿ	ɿ	ɿ	ɿ	賜
開四(嗟)	iai	jɑ	jɑ	jɑ	ja	ja	ja	jæ	je	je	也
開三(戟)	jak	jak	jak	jek	jɐk	jək	it	i	i	i	亦
合三(雨)	jua	juɔ	juɔ	jo	ju	ju	ju	ju	y	y	于
合三(牛)	juo	juo	juo	ju	jou	jou	jəu	jəu	jəu	jəu	又
開三(衣)	jəi	jəi	jəi	jəi	jəi	i	i	i	i	i	衣
開三(思)	jə	jə	jə	jə	i	i	ɿ	ɿ	ɿ	ɿ	子
開二(馬)	ea	ea	ea	ea	a	a	a	ja	ja	ja	下

6) 王力(1985)은 자신을 포함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漢語 音韻史에 대한 자신의 최종안이다. 특히 漢語 音韻史의 단계를 10 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서 국어 한자음의 비교에 유용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口訣 借音字 목록에서 제시한 上古音은 王力(1985)에서 先秦 語音에 해당하고, 中古音은 隋唐 語音에 해당한다. 도표의 韻母는 先秦 語音의 韻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7) 逆讀 口訣字에는 후대의 順讀 口訣 文獻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逆讀 文獻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逆讀 文獻 口訣로 분류하는 것이다.

나. 順讀 文獻 口訣

時代 / 韻母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淸	現代	該當 口訣漢字
開一(河)	ai	ɑ	ɑ	ɑ	ɑ	ɑ	ɔ	ɔ	ɔ	ə	可,那,阿
開一(大)	aːt	ɑːt	ɑːt	ɑi	ɑi	ɑi	ai	ai	ai	ai	大
開四(齊)	iei	iei	iei	iei	iæi	iæi	i	i	i	i	底,戾
開三(地)	jai	je	je	jei	i	i	i	i	i	i	地
開三(魚)	ja	jɔ	jɔ	jɔ	jo	ju	ju	ju	y	y	呂,於
開三(錄)	jɔk	jɔk	jɔk	juk	juk	juk	juk	y	y	y	彔(綠)
開四(苕)	io	io	io	iou	iæu	iæu	iæu	jau	jau	jau	了,小
開三(彦)	jan	jɑn	jɑn	jæn	jæn	jæn	jæn	jæn	jan	jan	面
合三(歸)	juəi	juəi	juəi	juəi	juəi	jui	jui	yi	uəi	uəi	未
開四(野)	ia	ia	jɑ	jɑ	ja	ja	ja	ja	je	je	舍
開四(齊)	iei	iei	iei	iei	iæi	iæi	i	i	i	i	西
開三(鋤)	ja	jɔ	jɔ	jɔ	jo	ju	ju	ju	u	u	所
開三(支)	je	je	je	je	i	i	i	ɭ	ɭ	ɭ	是
開三(之)	jə	jə	jə	jə	i	i	i	ɭ	ɭ	ɭ	時,士
開三(私)	jei	jei	jei	jei	i	i	ɿ	ɿ	ɿ	ɿ	四
開二(耕)	eŋ	eŋ	eŋ	eŋ	ɐŋ	ɐŋ	ɐŋ	əŋ	əŋ	əŋ	生
開三(兒)	je	je	je	je	i	i	i	ɭ	ə	ə	兒
開四(鷄)	ie	ie	ie	iæi	iæi	jæi	i	i	i	i	兒
開二(佳)	e	e	e	eai	ai	ai	ai	ja	ja	ja	厓
開三(言)	jan	jɑn	jɑn	jɐn	jɐn	jæn	jæn	jæn	jan	jan	言
開四(斤)	iən	jən	jən	jən	in	jən	jən	jən	in	in	殷
開二(艱)	eən	eən	eən	eæn	an	an	ean	jan	jan	jan	殷
開三(蹇)	jaːt	jɑːt	jɑːt	jæi	jæi	jæi	i	i	i	i	曳
開一(姑)	a	ɔ	ɔ	o	u	u	u	u	u	u	午,五,土,戶
開三(局)	jɔk	jɔk	jɔk	juk	juk	juk	juk	ju	y	y	玉
合一(過)	uai	uɑ	uɑ	uɑ	uɑ	uɑ	uɔ	uɔ	uɔ	uo	臥
開三(驕)	jo	jo	jo	jou	jæu	jæu	jæu	jau	jau	jau	要
開三(基)	jə	jə	jə	jə	i	i	i	i	i	i	已
開三(伊)	jei	jei	jei	jei	i	i	i	i	i	i	伊
開三(民)	jen	jen	jen	jen	in	jən	jən	jən	jən	in	印
開三(興)	jəŋ	jəŋ	jəŋ	jəŋ	jəŋ	jəŋ	jəŋ	jəŋ	iŋ	iŋ	應
開三(傷)	jaŋ	jɑŋ	jɑŋ	jɑŋ	jɑŋ	jaŋ	jaŋ	jaŋ	aŋ	aŋ	上

4.2. 韻攝에 따른 借音 口訣字의 검토[8]

4.2.1. 通攝: 〈冬〉 ▶ 冬
〈鍾〉 ▷ 衆(錄/綠), 玉

▶【冬 돌(ᄃᆞ/드)】 역독 구결에서 '不ᄉᆞᆫᄂᆞ-'의 표기에 쓰이는 구결자 'ᄉᆞ'의 독법 '돌(ᄃᆞ/드)'은 그 유래에 대하여 未詳이다. 다만 독음의 중성이 원순 모음이 아닌 점에서 借音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 王力(1985)에 의하면 '冬'의 先秦 韻母로 'uəm'을 재구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冬'의 核母가 원래는 비원순 모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ə'와 'ᄋᆞ/으'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차자 표기에서 '冬'의 운미가 '-m'이었을 가능성은 삼국 시대의 한자음에서도 엿보이므로, 구결 한자음으로서 '冬'의 역사성은 그 韻母를 'uəm'에 소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三國史記」의 地名 表記에 쓰인 '冬'(↔는 異表記 地名, →는 改新 地名)
가. 冬音奈縣 ↔ 休陰 → 江陰縣 → 河陰縣
나. 冬音忽 ↔ 冬乡忽 ↔ 鼓鹽城 → 海皐郡
다. 冬音縣 → 耽津縣
라. 武冬彌知 ↔ 昌冬彌知 → 單密縣

삼국의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6)의 표기는 향가에서와 같이 '音'이 'ㅁ[m]'을 표기한다고 할 때 '冬'의 말음첨기로서 이해될 수 있고, 아울러 '彌'의 초성도 'ㅁ[m]'이기 때문에 '冬'의 말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

8) 개별 口訣字에 대한 논의는 크게 韻攝별로 세분하고, 다시 역독 문헌과 순독 문헌의 것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는 역독 문헌 구결자이고, ▷는 순독 문헌의 구결자인데, 역독과 순독에 공통되는 것은 역독으로 하였다. < >에 제시한 韻目은 평성자(평성이 없는 경우는 거성자)로 제시하여 분류하였다. 성조별 해당 韻目과 等韻은 앞에 표로서 제시한 바와 같다.

탕으로 하면 '冬'의 독음은 애초에 'ᄃᆞᆼ/드'가 오히여 원형에 가깝고, 후대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둘'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彔(錄/綠) 록】 논의 생략.

▷【玉 ㄱ(옥)】 'ᄉᆞᆫㅁ玉(ᄒᆞᆫ곡)'과 같은 표기에서 '玉'은 첨사 'ㄱ'에 대한 표기에 쓰였다. 선행 구결에 '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隱, 乙, 音, 皃' 등과 같이 운미만을 차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음가 '옥'을 기준으로 하면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으며,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4.2.2. 止攝: 〈支〉 ▶ 只, 知, 彌, 賜 ▷ 是, 兒
〈脂〉 ▶ 尼, 尸, 利, 示, 屎 ▷ 地, 四, 伊
〈之〉 ▶ 止, 矣, 子 ▷ 時, 士, 已
〈微〉 ▶ 衣 ▷ 未

▶【只 ㄱ(기)】 주로 부사화 접사로 쓰인 'ㅅ'의 구결 독음에 대한 특징은 聲母 'ㄱ[k]'의 유래를 밝히는 데에 있다. 조선 한자음에도 '지/기'의 두 가지 음이 있다. '지'는 中古音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기'는 上古音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상고음은 성모가 설음 계열이지만, 周法高(1974 編)에 소개된 董同龢의 상고음은 'kjeg'이므로 성모와 운미가 모두 아음 계열로서 'ㄱ(기)'의 유래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조선 한자음에서도 상고와 중고의 두 기층의 한자음이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知 디】 논의 생략.

▶【彌 며】 구결자 'ᄼ'는 어미 '-며'의 표기에 쓰였다. 차음가 '며'는 중고음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조선 한자음 '미'와는 그 기원이 다르다. 隋唐代의 중고음 이전에 '彌'의 운모는 'jei'로 재구되므로, 이러한 재구음에서 근거를 찾게 되며 그 음가의 기반 역시 중고음 이전으로 소급된다.

▶【賜 시】 구결자 'ᄉᆡ'는 주체 존대 어미인 '시'의 표기에 쓰였다. 조선 한자음 'ᄉᆞ'는 중고 이후 宋代 정도의 기층을 갖는 독음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한자음에서 止攝 齒頭音字의 운모가 특이하게 'ᄋᆞ'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층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고 이후 근고음 정도의 한자음에서 그 기층을 찾고자 한다(이돈주 1981 참조). '賜'의 구결 독음 '시'는 그 기반을 중고음에서 찾을 수 있다.

▷【是 시】 논의 생략.

▷【兒 ᄉᆞ】 '兒'의 조선 한자음 'ᄉᆞ, ᄋᆞ, 예'에서 'ᄉᆞ/ᄋᆞ'는 止攝字의 음이고, '예'는 蟹攝字의 음이다. 구결자 'ᄇᆞ'의 독음이 바른 것이라면 그 음가의 기반은 近古音(宋元代音) 이후의 한자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尼 니】 논의 생략.

▶【尸 ㄹ(ㄹᆡ)】 借字 表記에 두루 등장하는 '尸(尸)'은 동명사형이나 관형사형으로 쓰였으며, 음가를 'ㄹ(ㄹᆡ)'로 추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음가의 기원을 해명하는 데에는 실로 다양한 견해가 있다. '尸'를 '羅, 良, 盧' 따위의 생략체로 보는 견해(梁柱東 1965), '尸'를 일종의 상형 문자로 보는 견해(池憲英 1962), '尸'의 古訓에서 찾으로는 견해(徐在克 1974) 등 여러 의견이 있으나, 兪昌均(1996: 154-164)에서 '尸'의 상고 성모를 'ㄹ[ㅣ]'로 추정한 설명이 '尸'의 한자음 자체와 관련하여 가장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尸'의 借音價인 'ㄹ[r/ㅣ]'의 정체는 아직 미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利 리】 논의 생략.

▶【示 시】 조선 한자음 '시'와 차이가 없으며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구결에서 주체존대 형태소를 표기한 '示(ㅋ)'는 후대의 문헌에서 '賜(ᄉᆡ)'를 대체하는 경향이며, 이것은 '賜'의 口訣 借音價인 '시'가 후대의 규범적인 한자음인 'ᄉᆞ'와 음가 차이가 야기된 데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屎 히】 부사화 접사 '히'를 표기하는 데에 쓰이는 구결

자 'ᄼ'는 본자로 추정되는 한자가 '屎, 兮'이다. '屎'의 조선 한자음은 '히/시'이기 때문에 구결 음가인 '히'를 '屎'의 중고음 기반으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兮 히】

▷【地 디】 논의 생략.

▷【四 ᄉᆞ】 구결자 'ㅭ'는 능엄경에서 'ㅅㅭㄱㅜ(ᄒᆞᄉᆞᆫ뎌)'와 같은 표기에 쓰였다. 조선 한자음 'ᄉᆞ'는 중고 이후 宋代 정도의 기층을 갖는 독음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한자음에서 止攝 齒音字(齒頭音, 齒上音)의 운모가 특이하게 'ᄋᆞ'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층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고 이후의 근고 한자음에서 그 기층을 찾고자 한다(이돈주 1981 참조). '四'가 역독 문헌의 것이었다면 그 독음은 'ᄉᆞ'가 아니라 '賜'와 마찬가지로 '시'였을 것이지만 후대의 순독 문헌이기 때문에 독음 'ᄉᆞ'는 문제되지 않는다.

▷【伊 이】 논의 생략.

▶【止 디】 '止'는 구결자 'ᄃᆞ'의 본자로 추정되어 차음가 '디'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佛'의 뒤에만 연결되기 때문에 분포가 제한되어 있어서 본자 추정이 확실하지 않다. '止'의 성모는 중고음에서는 치음계 파찰음이지만 중고음 이전에는 설음계 파열음이므로, 차음가 '디'는 중고음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한자음보다 이른 시기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矣 ᄃᆡ】 접속 어미나 처소 표시에 사용된 '矣(ㅅ)'의 구결 음가 'ᄃᆡ'의 정체 역시 미상이다. 이것이 借訓인지 아니면 借音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梁柱東(1965)에서는 '冬矣'의 생략 형태로부터 유래한 借音價라 하였고, 兪昌均(1996: 251)에서는 '矣'의 聲符가 '矢'인 것을 참고하여 차음가 'ᄃᆡ'를 '矣'의 상고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子 (ᄌᆞ)】 구결자 'ᄌᆞ' 역시 사용된 용례가 적고 대명사 정도로 파악되나, 아직 형태적 정체나 독법이 불확실하다. 다만 'ᄌᆞ'가 借音에 의한 구결자라면, 차음가 'ᄌᆞ'는 올바른 음가가 될 수없다. 止攝 齒音字는 중고 이후의 한자음에 의하여 운

모가 'ᄋᆞ'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역독 문헌에 쓰인 'ᄌᆞ'가 차음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지'로 독음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時 시】 논의 생략.

▷【士 ᄉᆞ】 구결자 'ᄉᆞ'는 형식 명사 'ᄉᆞ'와 객체 존대 어미 'ᄉᆞᆸ'의 이형태 표기 등에 사용되었다. 차음가 'ᄉᆞ'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고, 止攝 齒音字와 齒上音字의 반영 양상에 의하여 운모가 'ᄋᆞ'로 반영된 것은 중고 이후의 한자음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已 이】 논의 생략.

▶【衣 의】 '衣'를 본자로 하는 구결자에는 'ᄒᆡ'와 'ᄋᆡ'가 있지만, 역독 및 순독 문헌에서 일관되게 쓰인 것은 'ᄒᆡ'이다. 'ᄒᆡ'의 독음은 '옷, 어'로도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조선 한자음 '의'는 중고음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未 미】 논의 생략.

4.2.3. 遇攝: 〈魚〉 ▶ 去, 與 ▷ 呂, 所, 於
〈虞〉 ▶ 于
〈模〉 ▶ 古, 奴, 五, 乎 ▷ 奴, 午, 土, 戶

▶【去 거】 구결자 'ᄀᆞᆺ'는 주로 선어말 어미 '거'의 표기에 쓰였으며, 몇몇 한자어 뒤에서는 부사화 접사 기능도 하였다. 중고음에 있어서 遇攝의 핵모는 원순 모음 'o/u'로 재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魚韻의 핵모는 平山久雄(1967, 文璇奎 1987: 366-369)에서는 평순 모음 'ə'로 재구하였다. 그리고 제가의 견해에서도 魚韻의 핵모는 상고음으로 소급할수록 평순 모음으로 재구되므로, 조선 한자음 '거'는 중고음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조선 한자음에서 魚韻 3等은 '어'로 반영되고 4等은 '여'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3等 介母가 口蓋性이 약하여 핵모에 중화된 결과로 보인다. 3等과 4等에 의한 이러한 변별 역시 조선 한자음이 중고음 이

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等과 4等의 介母를 변별하여 재구할 경우 3等 개모는 中舌的인 'ɨ'로, 4等 개모는 前舌的인 'i'로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與 여】 구결자 'ㅋ'는 「華嚴經疏」에서만 사용되었다. 같은 魚韻의 '去'와는 달리 '與'는 口蓋的 介母로 파악되는 4等韻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핵모는 '去'와 마찬가지로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중고음 이전에 기반을 둔 한자음이라 하겠다.

▷【呂 려】 논의 생략.

▷【所 소】 구결자 '戶/所'는 감탄적 기능을 하는 선어말어미 '소'의 표기에 쓰였으며,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다만 '所'의 조선 한자음 '소'는 魚韻 3等으로서 '去'의 반영 양상과 같이 '서'로 될 것이 예상되나, 模韻과 동일한 원순 핵모인 '소'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반영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止攝의 齒音字가 'ᄋᆞ'로 반영된 시대 상황처럼 중고음 이후 근고음에 이르는 시대의 원순 핵모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구결자 '戶/所'가 역독 문헌에 쓰였다면 '서'로 독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於 어】 논의 생략.

▶【于 우】 논의 생략.

▶【古 고】 구결자 '口/古'는 의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등의 '-고' 표기에 쓰였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模韻 1等은 조선 한자음에서 '오'로 반영되어 있다. 중고음은 'u'나 'wo' 등으로 재구되며 중고음 이전에는 'o'로 재구되는 경향이므로, 조선 한자음 '古(고)'는 중고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奴 노】 논의 생략.

▶【五 오】 논의 생략.

▶【乎 호】 '乎'를 本字로 하는 구결자로는 借音인 '호'로 읽

는 'ㅅ/ㄱ/ㅠ'가 있으며, 아울러 借訓인 '온/오'로 읽는 'ㄱ/ㄱ'가 있다. 그러나 구결자 'ㅅ'와 같은 경우는 '호(ᄒᆞ-+오)'로 읽는 것과 함께 '相ㅅ(서로), 卽ㅅ(바로), 始ㅅ(비로소)' 등에서는 독음이 '오'이다. 이것은 借音과 借訓의 독음이 서로 유사한 데서 오는 상통이라 하겠다. 차음가 '호'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으며, 한자음 기반은 '古(고)'의 경우와 같은 차원이다.

▷ 【午 오】 논의 생략.

▷ 【土 토】 논의 생략.

▷ 【戶 호】 논의 생략.

4.2.4. 蟹攝: 〈齊〉 ▶ 第, 齊, 兮 ▷ 底, 西, (兒)
〈祭〉 ▷ 曳
〈泰〉 ▷ 大
〈佳〉 ▷ 厓
〈咍〉 ▶ 乃

▶ 【第 뎨(/자)】 구결자 'ᄼ'는 본자가 '第'로 추정되지만, 독법에 있어서는 아직 미상이다. 「舊譯仁王經」의 '三ᄼㄴ'을 '세잣/세자힛' 정도로 독음하는 것이 옳다면, 'ᄼ'의 독음 '자/자히'는 借訓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순독 문헌의 'ᄼ'도 독음에 대해서는 借音인 '뎨'로 읽는 것이 보통이나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차음가 '뎨'를 상정한다면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4等專屬韻인 齊韻은 조선 한자음에서 韻母가 '예, 여, 이'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중에서 '예'는 중고음 기반으로, '여'는 상고음 기반으로, '이'는 근고음 기반으로 각각 해석되고 있다.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되는 '예'의 비율이 약 70%로서 가장 높으며, '여'는 약 15%, '이'는 약 10%, 기타 'ᄋᆡ, 의, ᄋᆡ' 등이 약 5%이다.

▶ 【齊 져】 구결자 'ᄀᆞᆼ'는 병립적 연결 어미 '져'의 표기에 쓰였고 역독 문헌에만 나타난다. 구결자 'ᄀᆞᆼ'는 순독 문헌에만

나타나며 독음은 역시 '져'로 파악되나 확실치 않다. '齊'의 조선 한자음은 '졔, ᄌᆞ, 지, 재, 제, 자' 등으로 다양하나 '졔'가 正則音이다. '졔'의 陰韻尾 '-i'는 상고음에서 중고음에 이르는 사이에 入聲 韻尾의 약화와 같은 음운사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고 운부에 대한 폐운미설에서), 차음가 '져'는 상고음을 기반으로 하는 한자음에서 借音되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역독 문헌에 쓰인 구결자 'ᄀᆞ'는 차음가 '져'가 확실하므로 중고음을 기반으로 한 조선 한자음 '졔'보다는 이른 시기의 한자음에서 借音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兮 히】 구결자 'ᄒᆞ'는 역독 문헌이나 순독 문헌에서 거의 부사화 접사 '히'의 표기에 쓰였다. 구결자 'ᄒᆞ'의 본자로는 '屎'와 '兮'가 추정되나, 차음가 '히'의 측면에서는 '兮'보다는 '屎'가 적절하다. '兮'를 본자로 하면 역독 문헌의 차음가는 중고음 이전으로 소급되어야 하므로 '혀' 정도가 적당할 것이며, 단지 음독 문헌의 것이라면 '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兮'를 본자로 하면서 '혀'로 독음하는 방법과, '屎'를 본자로 하면서 '히'로 독음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요점이 된다. 아직까지는 'ᄒᆞ'의 독음 '히'에 대해 의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구결자 'ᄒᆞ'의 본자를 '屎'로 추정해 둔다. ☞【屎 히】

▷【底 뎌】 구결자 '氐/底'는 의문 종결 어미 '뎌'의 표기에 쓰였다. '氐/底'의 본자인 '底'의 조선 한자음은 '뎌, 뎨, 지'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뎌'가 '뎨'보다는 이른 시기의 한자음이라 할 수 있으며, '지'가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라 하겠다. 조선 한자음에서는 '뎌'가 일반화된 正則音이므로 음독 구결에서는 이것을 借音한 것이다. '底'의 조선 한자음 '뎌'는 중고음 이전의 상고음적 경향을 갖는 것이다.

▷【西 셔】 구결자 '一/西'는 'ㄴ小一, ㄴ小西(ᄒᆞ쇼셔)'에서처럼 종결 어미 '셔'의 표기에 쓰였다. '西'의 조선 한자음 '셔'는 중고음 이전의 상고음적 경향을 갖는 것이다.

▷【兒 ᄋᆞ】 구결자 'ᄅᆞ'의 독음 'ᄋᆞ'에 의하여 본자인 '兒'는 止攝에서 처리하였다.

▷【曳 예】 논의 생략.

▷【大 대】 논의 생략.

▷【厓 애】 논의 생략.

▶【乃 나】 구결자 'ᄂᆞ'는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의 표기에 쓰였다. '乃'의 조선 한자음 '내'는 중고음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역독 문헌에 쓰인 차음가 '나'는 조선 한자음과 다르다. '乃'의 상고음을 王力(1985)에서는 'nə'로 재구하고, 董同龢(1944)에서는 閉韻尾인 'nəg'로 재구하였다. 폐운미로 재구하는 경우 중고음에 있어서의 운미 '-i'의 발생은 운미 '-g'의 약화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게 된다. 아무튼 '乃'는 중고음 이전에는 운미 '-i'를 갖지 않았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셈이다. '乃'의 구결 독음인 '나'가 이와 같은 상고 한자음에 기반을 둔 한자음에서 借音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 한자음과 같은 '乃(내)'에서 略音化의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蟹攝의 소속자로서 역시 운미 '-i'가 반영되지 않은 '齊'의 구결 음가 '져'를 고려하거나, 또는 상고음과 관련이 깊은 역독 문헌인 점을 함께 생각한다면 前者에 의한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2.5. 臻攝: 〈眞〉 ▶ 乙, 叱 ▷ 印
〈文〉 ▶ 勿
〈欣〉 ▶ 隱 ▷ 殷
〈痕〉 ▶ 恨(艮)

▶【乙 ㄹ(을)】 구결자 'ㄴ/乙'은 목적격 조사나 동명사형 어미 'ㄹ'에 쓰인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다. 차자 표기로서 '乙(ㄹ/을)'은 구결, 향찰, 이두, 고유 명사 표기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었다. 조선 한자음뿐만 아니라 고대의 한자음에서도 韻尾

'-t'의 반영이 '-ㄹ'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차자 '乙'의 독음이 고래로 'ㄹ/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3·4等 兩屬韻인 眞韻은 조선 한자음에서 3等 開口字의 중성은 '으'로, 4等 開口字의 중성은 '이'로 반영되어 介母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遇攝 魚韻의 경우와 같은 차원이다. '乙'의 음가는 상고음에서 중고음까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므로 조선 한자음은 중고음에서 상고음에 이르는 기반을 갖는다고 하겠다. 다만 운미 '-t'가 '-ㄹ'로 반영된 것은 한국 한자음 자체에서 'ㄷ> ㄹ'로 변화했다기보다는 한자음 수용 단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세이다. 특히 漢語의 서북 방언에서도 唐代에 이미 입성 운미 '-t'가 '-r'로 변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羅常培 1933).[9]

▶【叱 ㅅ】 구결자 'ㄴ/叱'은 속격 조사를 비롯하여 부사형 어미, 어간의 말음 표기, 감동법 선어말 어미 등의 'ㅅ' 표기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조선 한자음은 '叱(즐)'이기 때문에 차자 표기의 '叱'의 독음인 'ㅅ'과는 거리가 멀다. 독음 'ㅅ'은 '叱'의 借音에 의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근거를 밝히기는 어렵다. 兪昌均(1996: 146-148)에는 '叱'의 한자음과 관련된 설명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印 인】 논의 생략.

▶【勿 믈】 구결자 '勿'은 역독 문헌인 「華嚴經疏」에서 '實勿'과 같은 표기에 사용되었으나, 그 정확한 독법은 미상이다. 조선 시대의 순독 문헌에서 조선 한자음대로 '믈'로 읽히므로 '믈'로 추정하는 것이다.

▶【隱 ㄴ(은)】 구결자 'ㄱ'은 주로 보조사 'ㄴ/은'에 쓰였지만, 동명사 및 관형사 기능을 비롯한 여러 기능의 어미에도 사용되었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같은 '은'이 기본이라 할 수

9) 宋基中(1995)에서는 唐代의 突厥語 假借 表記를 논의하면서 역시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있으므로, 한자음 기반은 중고음에 두게 되지만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도 있겠다.

▷【殷 언/은】 구결자 '月'은 「楞嚴經」(祇林寺本)에서 '月丁(언뎡)'과 같은 표기에 쓰였으며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문헌에서 '月丁'은 '言丁, 今ㄱ丁, 才ㄱ丁'과 동일한 표기이므로 '月'의 독음은 우선 '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月'의 차음은 기본적으로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는 '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미 '언뎡'에 대한 표기는 '月丁'보다는 '言丁, 今ㄱ丁, 才ㄱ丁'이 차음가의 측면에서 정칙이라 할 수 있으며, '月丁'이 쓰이게 된 것은 '月(은)'과 '言(언)'의 음가의 相似에서 온 혼용의 결과라 하겠다. 특히 祇林寺의 위치가 경상북도 월성군인 점을 감안하면 '은~언'의 상통은 방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恨 흔】 역독 구결에만 쓰인 구결자 'ㅁ'은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서 '餘ㅁ, 今ㅁ'의 표기에 쓰였다. 南豊鉉(1993)에서는 「借字表記 詩經釋義」의 구결을 바탕으로 'ㅁ'의 본자를 '艮'으로 하면서 독음을 'ㄱ/ㄱ'로 추정하였으나, 沈在箕·李丞宰(1998)에서는 '餘ㅁ, 今ㅁ'을 각각 '餘ㅅㄱ, 今ㅅㄱ'과 동일한 표기로 간주하여 독음을 '흔'으로 하고 본자는 '恨'으로 추정하였다. 구결 문헌에서 '餘ㅁ'과 '今ㅁ'은 각각 '餘ㅅㄱ'과 '今ㅅㄱ'과 비교할 때 형태론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구결자 'ㅁ'의 본자를 '恨'으로 하면서 '흔'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차음가 '흔'은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漢語의 핵모 'ə(또는 'ɐ')는 조선 한자음에서 'ᄋᆞ/으/어'로 반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중에서 특히 'ᄋᆞ'는 고층의 반영으로서 그 기반을 중고음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朴炳采 1971: 200).

4.2.6. 山攝: 〈元〉 ▷ 言
〈仙〉 ▷ 面

▷【言 언】 구결자 'ᄒᆞᆫ/ᄒᆞᆫ'은 'ᄒᆞᆫ丁(언뎡)'에서와 같이 선어말 어미 '어'에 'ㄴ'이 결합한 '언'의 표기에 쓰였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으며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元韻의 핵모는 상고에서 중고에 이르면서 저모음에서 중모음화하는 경향이며, 元韻 3等 開口의 介母는 구개성이 약하여 중화되기 때문에 조선 한자음에서는 단모음인 '어'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형이다.

▷【面 면】 논의 생략.

4.2.7. 效攝: 〈蕭〉 ▷ 了
〈宵〉 ▷ 小, 要
〈豪〉 ▶ 刀, 毛

▷【了 료】 구결자 'ᄅᆞ'는 미래 의문 어미 '-리오'의 축약형인 '료'의 표기에 쓰였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 蕭韻에 대한 조선 한자음의 반영은 중고음을 전후하여 지향성에 있어서 상고와 근고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있으나(朴炳采 1971: 123), 반영 양상 자체가 정연하므로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하여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小 료】 논의 생략.

▷【要 요】 논의 생략.

▶【刀 도】 논의 생략.

▶【毛 모】 구결자 'ᄆᆞ'는 「舊譯仁王經」에서만 쓰였으나 아직 독법이나 기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4.2.8. 果攝: 〈歌〉 ▶ 多, 羅 ▷ 可, 那, (大), 阿
〈戈〉 ▶ 果 ▷ 麼, 臥

▶【多 다】 논의 생략.

▶【羅 라】 논의 생략.

▷【可 가】 논의 생략.

▷【那 나】 논의 생략.

▷【阿 아】 논의 생략.

▶【果 과】 논의 생략.

▷【麼 마】 구결자 '广/麻'는 양보 기능의 연결 어미 '-마'의 표기에 쓰였다. 果攝의 脣音字 모두 合口音인데, 조선 한자음에서는 合口 介母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聲母와의 관련에서 合口 介母가 중화된 결과라 할 것이다. 조선 한자음 용례는 찾을 수 없으나 이 글자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 한자음도 '마' 이외의 것이 될 수가 없으며,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臥 와】 논의 생략.

4.2.9. 假攝: 〈麻〉 ▶ 沙, 也, 下 ▷ 舍

▶【沙 사/ㅿ아】 구결자 'ᄉᆞ'는 강세 첨사 '사/ㅿ아' 표기에 쓰인 것이 보통이며, 역독 문헌에서는 어간 표기에도 사용되었다. 果攝 歌韻이 1等韻이고, 假攝 麻韻은 2等韻으로서 중고음에서는 서로 변별되는 것이지만 조선 한자음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아'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 한자음 기반은 중고음이다. 차음가 '사'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어서 논외이나, 중세 국어에서 강세 첨사 '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ㅿ아'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15세기 국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ᄉᆞ'의 독음은 'ㅿ아'가 정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 한자음에서 'ㅿ아'로 독음되는 한자가 없고 다만 비슷한 '兒(ㅿᆞ)'는 있으나 '兒'에 대한 조선 한자음 'ㅿᆞ'는 중고음 이후의 비교적 늦은 시기의 한자음에 기반을 둔 것이다. 아마도 聲母에 차이가 없다면 '兒'의 고려 시대 초기 정도의 음은 'ㅿ이'가 되어야 한다. 구결자 'ᄉᆞ'는 역독 문헌에서부터 사용되었으므로 당시의 한자음에서는 'ㅿ아'에 대한 표기에 꼭 맞는 한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5 세기 국어의 강세 첨사 'ㅿ아'의 기원을 '사'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향가에서도 같은 용법으

로 '沙'가 쓰였으므로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也 야】 논의 생략.

▶【下 하】 논의 생략.

▷【舍 샤】 논의 생략.

4.2.10. 宕攝: 〈陽〉 ▷ 上

▷【上 자】 구결자 'ㅗ'은 어미의 일부로 쓰였으나 독음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還上(환자), 捧上(받자/밧자), 外上(외자), 上下(차하)' 등에 의한 이두식 독법에 의하여 '자'로 독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上'의 조선 한자음은 '샹'이기 때문에 독음 '자'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홍순탁(1974: 9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권 37)의 '佐贊縣本上杜, 佐魯縣本上老'에 의한 '佐 : 上'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佐'의 조선 한자음은 '좌/자'인데, 중고음에서는 開口 1等韻으로서 'tsɑ'로 재구되므로 오히려 '자'가 정칙음이다. 목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上'의 상고음이나 중고음은 'ʑjaŋ'으로서 운미를 제외한다면 '자'음 표기에 이용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三國史記」의 복수 지명 표기에서 운미 'ㅇ[ŋ]'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羅 : 良(何瑟羅一云河西良), 同 : 豆(奴同覓一云如豆覓), 良 : 耶(大良一作耶州郡)' 등의 예를 더 들 수가 있으므로, '上 : 자'의 표음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구결자 'ㅗ'이 비록 역독 문헌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순독 문헌에 사용된 'ㅗ(자)'는 고대로 소급되는 이두식 독법에 의하여 구결에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2.11. 梗攝: 〈庚〉 ▷ 生
〈淸〉 ▶ 亦
〈靑〉 ▶ 丁

▷【生 싱】 구결자 'ᄉᆡ'은 「楞嚴經」(朴東燮本, 祇林寺本)에서

사용되었다. 「楞嚴經」(朴東燮本)에는 'ᄂᆞᄆᆞᅀᆞᅵ'의 표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ᄒᆞ도ᄉᆞ이다> ᄒᆞ도ᅀᅵ이다'의 표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ᅀᅵᆼ'의 이중 모음 'ᅴ'가 후행하는 '이' 모음의 동화를 입은 발음을 표기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결자 'ᅀ'은 조선 한자음대로 차음가 'ᅀᅵ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10] 梗攝 庚韻은 2等이지만 조선 한자음에서 庚韻의 핵모가 단모음이 아닌 중모음 'ᅴ'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개적 운미의 영향이라는 논의가 주류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설적인 핵모 'e~ɐ'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음 'ㅣ[j]'를 덧붙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음가를 'ᅀᅵᆼ'으로 하면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고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亦 여(/이)】 구결자 'ㅗ/ᄉᆞ'는 병렬, 연결, 감탄 기능의 '-여'의 표기에 쓰였고, 구결자 'ㅣ'는 조사, 어미, 접사 등의 '이' 표기에 사용되었다. 우선 차음가 '여'는 운미 'ㄱ[k]'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고대 국어의 차자 표기의 관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즉 '旨 : 直(屈旨縣一云屈直)'의 대응이 대응이 보여 주는 것처럼 고대의 차자 표기에서 운미에 대한 대응에는 융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亦'의 구결 독음인 '여' 역시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이두식 독법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구결자 'ㅣ(이)'의 본자가 '亦'이 맞다면 이것 역시 '亦'의 이두식 독법인 '이여/여'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丁 뎡/뎌】 논의 생략.

4.2.12. 曾攝: 〈蒸〉 ▷ 應

▷【應 ㅇ】 구결자 'ᄀᆞ'은 'ㅣ'와 합체하여 공손법 어미 '이'의 표기에 쓰였다. 그러므로 '應'에 대한 차음가는 자음 'ㅇ[ŋ]'이

10) 白斗鉉(1997)에서는 'ᄉᆞᄂᆞ'를 공손법 어미 '이'를 표기한 것이라 하였다.

며, 韻尾만을 차음한 것이다.

4.2.13. 流攝: 〈尤〉 ▶ 又

<侯> ▶ 斗

▶【又 우】 구결자 '又'는 「華嚴經疏」에서 '我又'로 쓰였는데, 「金光明經」의 '我ㅋ'와 같은 어휘 표기이다.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으며, 조선 한자음에서 介母가 반영되지 않는 尤韻 3等의 일반적인 양상에 따라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斗 두】 논의 생략.

4.2.14. 深攝: 〈侵〉 ▶ 音, 邑

▶【音 ㅁ】 구결자 'ㅎ'은 향가에서처럼 말음 첨기나 또는 어미의 일부인 'ㅁ' 표기에 쓰였다.

▶【邑 ㅂ】 구결자 '邑/巴'은 어미의 일부인 'ㅂ'의 표기에 쓰였다. 구결 借音字에서 운미만을 차음한 경우는 '隱(ㄴ), 乙(ㄹ), 音(ㅁ), 邑(ㅂ), 應(ㅇ)' 등이 있는데, 이들의 조선 한자음은 운미를 제외한 부분이 모두 '으'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고려가 있었던 셈이다. 즉 구결 표기의 역사를 통하여 국어의 매개모음으로서 '으'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겠다.

4.2.15. 咸攝: 〈談〉 ▶ 三

▶【三 삼】 논의 생략.

4.2.16. 國字: ▶ 厂

▶【厂 마】 구결자 '厂'는 조사의 일부인 '마'의 표기에 쓰였으며, 역독 문헌에서 많이 나타난다. 國子로 처리되는 '厂'는

'마치'의 모양에서 造字되었다고 한다.

5. 綜合

지금까지 借音 구결자에 대한 논의에서 일차적으로는 역독 문헌과 순독 문헌의 구결을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세부적으로는 韻攝에 의한 분류를 통하여 借音의 상황과 구결 한자음의 기반에 대해 살펴 보았다. 논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요점을 정리하여 결론을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역독 구결의 차음가는 조선 한자음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역독 구결의 한자음은 상고음적 기반을 가졌거나, 또는 조선 한자음보다 이른 시기의 한자음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 冬, 只, 彌, 賜, 止, 齊, 乃

<2> 역독 구결 시대의 한자음은 조선 한자음과 기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순독 구결은 조선 한자음과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체 존대 '시'의 표기에는 역독 문헌의 구결자 '賜(ᄉᆞ)'가 최초로 쓰였으나, 이후의 문헌에서 '示(ㅣ)'나 '時(時)'로 교체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한자음이 조선 한자음식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순독 구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구결자는 중고음 이후 근고음 정도의 기반을 가진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兒, 四, 土

<4> 고대 국어의 借字 표기의 관습을 잇는 것으로 이해되는 특수한 독음의 이두식 구결자가 있다. ☞ 冬, 矣, 上, 亦

<5> 韻尾만을 借音한 경우의 한자음은 운미를 제외한 부분이 '으'이기 때문에 매개모음으로서 '으'의 위치는 역사성에 있어서 역독 문헌과 순독 문헌에서 동일하다. '玉'도 'ᄉᆞᄆᆞ玉(ᄒᆞ곡)'과 같은 표기에 쓰였으므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 (玉), 隱, 乙, 音, 邑

<6> 한자음 기반의 맥락에서 구결자 'ᄒᆞ'는 '兮'를 본자로 하면서 '혀'로 독음하는 방법과, '屎'를 본자로 하면서 '히'로 독음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요점이다. 우선은 'ᄒᆞ'의 독음 '히'에 대해 의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구결자 'ᄒᆞ'의 본자를 '屎'로 추정해 둔다.

<7> 구결자 'ㄱ, ㅅ'의 본자를 '尸, 矣'로 할 경우 차음가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兪昌均(1996)의 견해와 같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한자음과의 관련성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8>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고려 시대의 구결 한자음은 역독 문헌이나 순독 문헌을 막론하고 크게는 漢語 中古音과의 관련성을 공통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고음을 기점으로 하여 상고 지향과 근고 지향이라는 차이점은 역독 구결과 순독 구결의 특징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특히 구결 한자음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조선 한자음은 고려 시대 초기까지도 조정 국면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역독 문헌의 구결은 조정되기 이전의 한자음 체계에 기반을 두었고, 순독 문헌의 구결은 조정 이후의 새로운 체계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겠다. 고려 시대 초기의 조정 시기를 통하여 상고 지향성 한자음은 부분적으로 중고음이나 근고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자음으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선 한자음이 부분적으로 상고음 기반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에 교체 대상이 된 한자음은 새로운 기반을 가진 한자음과 충돌하여 자리를 내준 한자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南廣祐(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出版部.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 Ⅲ. 塔出 出版社.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文璇奎(1987). 『中國古代音韻學』 民音社.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硏究』 (音韻篇) 高麗大學校 出版部.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大 博士論文.
白斗鉉(1997).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太學社.
徐在克(1974). 『新羅鄕歌의 語彙 硏究』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宋基中(1995). "唐代 突厥語의 假借 表記와 國語漢字音의 終聲" 「國語史와 借字表記」 太學社.
송하진(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辛容泰(1988). 『原始 韓·日語의 硏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梁柱東(1965). 『古歌硏究』 (增訂) 一朝閣.
兪昌均(1996). 『鄕歌批解』 (補訂) 螢雪出版社.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全南大 博士論文.
이돈주(1981). "지섭(止攝) 한자음과 /ㅇ/음의 반영" 「한글」 173·174. 한글학회.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李丞宰(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太學社.
정재영(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홍순탁(1974). 『吏讀硏究』 광문출판사.
王力(1985).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權宅龍 옮김(1997, 도서출판 대일).
有坂秀世(1957, 1962 再版). 『國語音韻史の硏究』 (增補新版) 三省堂.

李珍華・周長楫(1993).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周法高(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河野六郎(1964~1965). "朝鮮漢字音の硏究" 「朝鮮學報」 31-34, 41-44. 「河野六郎著作集 2」(1979, 平凡社)에 再收錄.